「퇴직연금 백만장자」 확대 위한 정책 제언

- 美 퇴직연금 401K 사례 중심 -

2024년 7월 5일 (金)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여의도연구원
THE YEOUIDO INSTITUTE

‘퇴직연금 백만장자’ 확대 위한 정책 제언

– 美 퇴직연금 401K 사례 중심 –

2024.7.5.(금) 정책실 연구위원 장 욱

□ 미국 ‘퇴직연금 백만장자’ 15년간 32배 증가
□ 한미간 퇴직연금 격차 심화
□ 401K 퇴직연금 자산 80% 이상 미국 국내 주식시장 유입
○ 퇴직연금 자산 – 주식시장 선순환 통해 연금투자자, 기업,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 윈윈
□ 주식형 투자상품에 자동 운용되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으로 401K 새롭게 도약
□ 원리금 보장상품에 80% 이상 가입된 우리 퇴직연금 자산 불리기는 구조적 한계
□ ‘국민연금 개혁’과 ‘퇴직연금(사적연금) 수익률 강화’ 투 트랙 정책 방점
□ 시간 다소 걸리더라도 퇴직연금 자산과 국내 주식시장 ‘디커플링’ 해소해야 퇴직연금 백만장자 다수 배출 가능

1. 미국 ‘퇴직연금 백만장자’ 현황

○ **지난 15년간 32배 증가**

– 퇴직연금 계좌에 100만달러(한화 약 13억8천만원) 이상 잔액을 보유한 401K 퇴직연금 백만장자 규모는 69만명 안팎 * 피델리티 운용사 올 1분기 기준

– 미국 퇴직연금 백만장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경우 2만1000명으로, 15년만에 32배 이상 증가

○ **한미간 퇴직연금 격차**

– 미국 근로자의 경우 은퇴시점에 퇴직연금 계좌에 평균 9억원 보유

–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유액은 평균 5500만원(은퇴시점 기준)

○ **이에 同 보고서에선 미국 퇴직연금 백만장자 대거 배출의 배경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함**

2. 미국 퇴직연금 401K

□ 401K 도입

○ **미국 퇴직연금 DC형(확정기여형)의 발전은 1974년 엘리사법**(ERISA법·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) **제정이 계기가 됐음**

- 미국의 경우 기업이 종신연금 형태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DB형(확정급여형) 퇴직연금 형태가 1970년 대초반까지 다수를 차지했음

* 주: DB형은 기업이 직원이 퇴직연금 금액을 책임지는 방식인 반면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

-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리를 보호하고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법에 명문화

○ **세금 인센티브**

- 1978년 제정된 미국 내국세입법은 401K에 가입하면 소득세 이연 및 연간 1만4000달러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

* 미국 퇴직연금 DC형을 401K라고 일컫는 것은 동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는데서 유례

-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(기업은 법인세 공제) 혜택을 누리며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영해 수익을 내는 방식 확산 유도

○ **401K 세금 공제 한도는 적립금 한도와 동일**

- 2024년 기준 401K 연간 적립금 한도는 2만3000달러(약 3100만원)
- 소득공제 한도는 매년 증가

※ ▲2020년 1만9500달러 ▲2022년 2만500달러 ▲2023년 2만2500달러

- 중도해지할 경우 높은 소득세와 10% 벌금을 부과해 장기투자 유도

□ 401K 확산 배경

○ **2차 오일쇼크, 초고금리 정책으로 DC형 401K 퇴직연금 제도 확산**

-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했고 폴 볼커 당시 美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기준금리를 연 20%대까지 끌어올리는 초고금리 정책 추진
- 미국 경기는 초긴축정책으로 침체됐고 당시 미국 중소기업 40% 가량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10%로 치솟았음

– 때문에 퇴직연금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됐고, 근로자는 기업 도산으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

○ 세금 인센티브 통해 두 마리 토끼 잡으며 401K 제도 연착륙

– 기업은 퇴직연금의 부담을 줄이고, 근로자는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 받는 DC형 401K가 기존 DB형 퇴직연금을 빠르게 대체하며 정착

□ 401K 백만장자 대거 배출 변곡점

○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

– ‣401K 자동가입 제도 ‣적립금 자동인상 제도 ‣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 행동경제학적 분석을 접목하면서 401K 대도약 전기 마련

–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의사를 밝히는 과정을 거쳐야했으나 자동가입 제도 도입으로 반대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(자동가입을 기본값으로 설정)

–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라 적립률도 올라가는 ‘자동인상 제도’ 신설

– 근로자가 별도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고용주인 기업이 사전에 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 운용하는 ‘디폴트옵션’ 제도 도입

☞ 주식형 투자 상품에 자동 운용되면서 수익률 제고 효과

□ 401K 연금자산 - 미국 주식시장 시너지

○ 401K 연금자산 80% 이상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입

– ICI(미국 자산운용협회)에 따르면 401K 연금계좌에서 주식에 투자되는 비중은 86%

※ 미국주식 47%, 주식채권 혼합 28%, 글로벌 주식 11%

– 401K 연금자산이 연평균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규모는 4000억달러(약 552조원)로 추산

○ 401K 경우 법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 제한이 없음

– TDF 펀드 등 통해 다양한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보편화

※ 주: TDF(Target Date Fund) 펀드는 은퇴 시점을 설정하여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투자상품

○ 401K 백만장자 배출의 비결은 연금자산과 주식시장의 선순환 구조

- 401K 연금자산 ⇨ 미국 국내 주식시장 대거 유입 ⇨ 주식 수급 원활 ⇨ 기업에 자금 유입, 기업 발전 견인 ⇨ 주가 상승 ⇨ 401K 연금자산 수익률 및 연금자산 상승 ⇨ 401K 백만장자 증가 (최근 10년간 401K 연평균 수익률 8~9%)
- 반면 2022년 경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401K 연간 수익률이 −20%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 폭락에 따라 연금자산이 크게 위축되는 사례 존재
- 그러나 연금자산을 주식시장에 장기투자하면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미국 증시와 401K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미국 근로자들 사이에서 보편화

※ 20대초반부터 401K 연금투자를 한도에 맞춰 꾸준히 지속할 경우 세제혜택과 더불어 50대 중후반에 한화 13억원 이상의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 크다는 인식 공유

3. 벤치마킹 포인트 및 정책 제언

○ (투트랙 대원칙 견지) '국민연금 개혁'과 '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강화'

- 공적연금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개혁하되,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금생활자의 연금자산, 현금흐름 등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 방점

○ (선순환 구조 유도) 퇴직연금 자산과 국내 주식시장 '디커플링' 해소

- 중장기적으로 미국 401K 퇴직연금 자산의 주식시장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
- 퇴직연금 자산이 주식시장에 유입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, 다시 투자수익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본질적인 방안

※ 퇴직연금 자산과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

- 401K 연금자산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의 80% 정도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경우 약 300조원이 우리 증시를 떠받치면서 주식 수급이 원활해지고 기업 발전 등의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

※ 2024년 현재, 퇴직연금 자산의 주식시장 유입 비중이 10% 초반대 수준, 80%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이뤄져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(통상 연간 수익률 1~2%대)

-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의 밸류업이 함께 맞물리면 연금투자자와 기업,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 윈윈하는 선순환 파이프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

○ (세제혜택 강화) 연금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강화

- 사적연금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매년 증가시키는 401K 세제혜택 방식 검토

※ 현재 사적연금 세액공제 규모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해 연간 900만원으로 401K의 30% 수준

- 주식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15.4%(소득세 14%+지방세 1.4%)로 분리과세

※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추진 발표. 현재 금융소득(이자,배당)이 年2천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

※ 일본의 경우, 약 20%로 분리과세

○ (수익형 상품 가입 확산) '무늬만 디폴트옵션' 재구조화

- 미국 401K 퇴직연금 체제에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본래 취지는 수익률 제고
-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했으나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달리 디폴트옵션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 위주로 구성돼 디폴트옵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 제기
-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주식형 상품 등을 보완하여 재구조화할 필요

○ (생존 경제교육 도입) 연금자산 운용 마인드 향상

- 연금자산은 중장기로 운용되는 자금이나 '퇴직금만큼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'는 생각으로 안정형 상품에 가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되레 자산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음
- 연금자산 운용時 장기투자 장점과 시간의 복리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과 투자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식 필요
- 금융 및 실생활 경제투자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생존 경제교육체계를 공교육 등에 반영하여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